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주/웨슬리 회심기념주일 -

- 조용한 기도 (Silent Prayer) 시편 91:1-7 다함께
- 찬 송 (Opening Hymn) 28장(새 28장) 다함께
-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새 17번(스크린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 (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허락 하심을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 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 니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날 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깨닫게 하셔서 하루, 하루가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님께만 소망을 두는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오늘을 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 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 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계시록 2:1-7 인도자
- 찬양 (Anthem) 시온성가대
- 말씀증언 (Sermon) 이송원 목사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1)

- 봉 헌 (offering) 349장(새 214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 (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 (Hymn) 353장(새 317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다음 주 예배 후 본당에서 '교회 미래를 위한 2차 전교인 회의'로 모입니다.
3. 친교 후 소망 속회로 모입니다.
4. 말씀묵상집 6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시카고 영사관 순회영사가 대사관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성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허춘희권사님, 최은진권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 소망속] 고린도후서 11:2-3

신앙의 위기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변질되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인생의 문제는 붓물 터지듯 생겨납니다. 크고 작은 일상에서 이전에는 별것 아니었던 것으로 쉽게 짜증 내고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에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요한계시록 2:1-7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 에베소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1-3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칭찬하실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에베소교회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고, 어떤 권고를 받았습니까?(4-7절)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시작이 되어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지 지나간 사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장래에 대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거창하게 선포할지라도, 지금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이것 역시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활개 치며 다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주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울무를 놓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분주함으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그리고 타인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의 근원은 그가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분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질 때입니다. 에베소교회는 칭찬받은 만한 믿음의 행위와 수고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는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교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주님을 잘 섬겼더라도 그것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가 지금의 신앙을 유지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주님을 온 맘과 생명,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